

신안군 국내 최초 '한국섬생활사박물관' 건립 추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 완료 자은 옛 두봉초에 2023년부터 150억 투입

신안군이 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내 최초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한국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5개의 섬을 보유한 신안군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09년 폐교된 자은면 두봉초등학교를 매입해 부지를 확보했다.

이어 2011년부터는 목포대학교도

서문화연구원과 함께 섬 문화자료 조사와 수집을 해 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흑산·홍도·가거도 등 신안군 섬 생활사 자료뿐만 아니라 진도·완도·통영·웅진 등 전국 섬 지역 생활사 자료를 조사했으며, 조사내용을 정리해 7권의 책도 발간했다.

그 동안 수집된 자료는 신안군을 비롯해 주요 섬 지역 생활사 1254점, 우이도 문제옥 일가 생활문서 511점, 신안군 생활상 사진자료 1767점 등 총 4860점에 이른다.

수집된 생활도구는 섬의 자연·생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며,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섬 사람들의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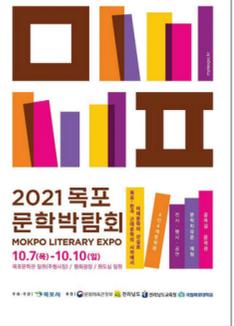
섬 생활 도구이지만 어업이 아닌 농업과 관련된 수집품의 비중이 높다. 이는 물과 토지가 부족했던 섬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독창적인 도구로 학술 가치도 매우 높다.

신안군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부터 150억원을 투입해 '한국섬생활사박물관' 건립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섬은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섬을 삶의 터전으로 일군 섬주민의 노력이 있기



에 가능했다"면서 "섬 주민이 만들어 사용한 생활 도구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안군은 조상의 노력을 잊지 않고 섬의 정체성을 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기자



목포문학박람회 개막
오늘부터 10일까지 진행

'2021 목포문학박람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평화광장 등에서 전시, 행사, 공연 등 10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막일인 7일에는 목포문학관에서 김우진 문학제, 김우진 연극 제작자 초청 좌담회, 버스킹 공연, 목포문학관마당 등이 진행된다. 주행사장 프린지 무대에서는 박화성 단편소설 옴니버스 연극 '꽃재 이야기'를 비롯해 차범석의 '육단어 놀자', 인형극 '사랑에 빠진 개구리', '목포전설', '문학에 스며든 음악, 예술가곡으로 만나다' 등이 무대에 오른다.

8일에는 목포문학관에서 차범석 학술대회와 시민 시낭송 대회가 열린다. 프린지 무대에서는 '기을..춤그리는 향', '시와 우리 가곡의 이해와 감상', '문학에 스며든 음악, 예술가곡으로 만나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무대를 선보인다.

9일에는 목포문학관에서 박화성문학페스티벌, 한국시조시인대회, 여성 문학인 대회 및 문학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프린지 무대에서는 아트북 제작쇼, 소영 박화성 백일장대회·청소년시낭송대회, 썬툰(모히토 모히칸) 작가와 함께 하는 드로잉&토크쇼, 원더풀 목포로(로)가 펼쳐진다.

마지막날인 10일에는 목포문학관에서 김현문학축전, 시민 시낭송대회, 김현 시노래콘서트가 열리며, 프린지 무대에서는 '코로나 역병은 조선사운드!' 공연이 진행된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 시작

영암군은 지역 특화작목인 고구마의 안정적인 생산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고구마 무병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생산한 조직배양묘로 올해 12월까지 5만여 본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받은 조직배양묘는 육묘하우스에서 증식되며 내년 분담에 정식하여 씨고구마용으로 생산된다.

공급품종으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소담미, 진율미, 풍원미, 호감미 4종으로 특히 올해 육성된 소담미는 단맛이 강하고 육질이 부드러우며 저장성이 우수하여 농가 효용도가 높아 분양신청이 많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씨고구마를 조직배양묘로 갱신해야 바이러스 없는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교육

영광군은 지난 9월 29~30일 이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보리, 흰찰보리, 양파, 고추, 콩, 쌀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9월 29일을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300여 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교육 등이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소비자들이

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인증 농가를 점차 확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인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매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사)전국한우협회 함평지부, 방역·수급조절 캠페인

한우 사육두수 증가 따른 가격하락 대비



함평군과 (사)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지부장 김낙현)가 한우 K-방역 및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함평군은 6일 "지난 5일 함평가

축시장에서 이상의 함평군수, 김영인 군의원, 김재영 전국한우협회 전라남도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과 수급조절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했

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암소 감축 및 비육지원사업 동참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K-방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가축시장 경매 시간인 오전 9시에 맞춰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 홍보물품(육포) 등을 배부하며 경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캠페인 동참을 격려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군 주력 품목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역 및 수급조절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안정적인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준기자

무안읍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내일까지 주민자치 사업 필요성·자치 기본 개념 등 강의

무안군 무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향만)는 지역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작되어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안읍 전

통시장 2층 회의실에서 4회에 걸쳐 실시 중이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이해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은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고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